

여류시인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처방식과 지향성

— 송덕봉과 삼의당 漢詩를 중심으로 —

한 성 금*

차 례

1. 서언
2. 유교적 규범의 수용과 삶의 방식
 - 2.1. 송덕봉의 유교적 명분과 능동적 삶
 - 2.2. 삼의당의 유교적 체득과 긍정의식
3. 부부관 인식과 시적 표현
 - 3.1. 주제적 인정과 절제
 - 3.2. 상대적 존재와 다양성
4. 결어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조선 중기의 宋德峰(1521, 중종 16-1578년 선조 11)과 조선 후기의 金三宜堂(1769, 영조 45-1823, 순조 23)의 한시를 분석하여 작가의 삶의 방식과 문학적 지향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사람은 유사환경에서도 다른 문학작품을 표출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조선 중기와 후기의 사대부 여성역의 변모와 사대부 여성문학의 단면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2장에서는 유교적 규범의 수용과 삶의 방식을 고찰하였다. 송덕봉과 삼의당은 유교적 규범을 수용하였지만 삶의 방식은 차이를 드러냈다. 16세기 송덕봉의 유교적 규범의 수용은 자신이 나름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명분이었다. 그녀는 매우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혼인 생활은 물론이고 자신의 문학활동에 대해서도 강한 자부심을 지녔다. 이러한 자부심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할 수 있는 당당함과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다. 송덕봉의 문학적 지향의식은 남편과 자식을 비롯한 가족사랑이 중심이 되었으며 유교적 규범을 넘지 않았다.

삼의당 김씨는 어려서부터 체득한 철저한 유교적 가치관을 수용하였다. 유교적 여필종부의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남편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녀는 남편의

* 조선대학교

입신양명으로 몰락한 가문을 세우려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 남편의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머리를 자르고 비녀를 팔아 내조하였고 경제적 어려움과 두 자녀까지 잃었지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 힘든 생활에서도 늘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다. 그녀의 시적 표현은 유교적 이념을 표현한 시와 유교적 규범에서 벗어난 여성으로서 솔직한 감정표현의 시가 있다.

3장에서는 부부관 인식과 시적 표현을 고찰하였다. 부부관은 그들의 문학작품을 표출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였다. 두 사람의 부부관 인식을 보면 송덕봉은 남편과 대등한 관계였고 詩友로서 남편에게 주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남편의 신뢰와 애정도 지극하였는데 송덕봉의 남편에 대한 애정의 표출은 담백하여 유교적 규범을 넘지 않았다. 반면에 조선 후기 삼의당은 남편을 상대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녀의 시적 지향은 늘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감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삼의당의 다양한 시적 소재 선택과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특히 부부의 애정 표현도 대범하고 적극적이어서 사대부 여성이지만 탈 유교적 감정 표출을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의 시적 언어는 내면의 유교적 규범 인식과 실천, 부부관 인식에 따라 선택된 주제와 표현 방식은 다르게 드러난다.

핵심어 : 진보적 사고방식, 문학적 지향의식, 유교적 규범, 긍정의식, 주체적 인정, 상대적 존재

1. 서 언

본고는 조선 중기의 宋德峰(1521, 중종 16-1578년 선조 11)과 조선 후기의 金三宜堂(1769, 영조 45-1823, 순조 23)의 한시를 분석하여 작가의 삶의 방식과 문학적 지향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덕봉과 김삼의당의 한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은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의 양반 사대부 부인으로서 몇 가지의 환경적 요소가 공통적 상황에서도 시적 지향과 표출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송덕봉과 삼의당은 오랜 세월 남편과 헤어져 살았지만 부부의 애정이 돈독하였고 부부 사이에 수창시로 소통하였다. 그들은 유교적 규범 속에 살았음에도 생을 비판하지 않고 능동적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士族의 부인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된 삶을 살았지만 시에 표출된 지향의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이 추구했던 의식과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지향점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부인의 의식의 변화와 사대부 여성문학의 단면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조선 시대 여성들은 규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들의 삶을 일구고 자신의 꿈

을 가꿔야했다. 그러다보니 그들 중의 몇몇 여성들은 囚人意識¹⁾에 사로잡혀 원망과 恨으로 문학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학이 ‘규방’이라는 폐쇄된 삶 속에서 규원의 恨으로 고정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히 양반가의 사대부 부인들은 표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표현 주제에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격화되고 도식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 한시 작품은 ‘부덕이 언어적 규범으로 작용하여 여성 한시의 평가 기준이 될 정도로²⁾ 내용성에 비중을 두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은 “여자도 논어와 효경 女戒 등을 배워 그 대의를 대략 깨쳐야하지만 여자에게 시 짓기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³⁾”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문학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었고 금기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주체적 삶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했던 이들의 삶의 방식과 지향의식이 문학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 문학사에서 士族 부인들의 의식세계의 변화와 관련된 한시 작품을 규명하는 단면이 될 것이다.

2. 유교적 규범의 수용과 삶의 방식

송덕봉⁴⁾과 삼의당⁵⁾은 일상생활을 드러낸 생활시를 쓰고 있는데 송덕봉의 시

- 1) 조선시대 여인들은 규방 인식을 원망 현실의 부정적 공간, 님 부재의 공간, 엄숙한 사회제도의 장치를 새장이란 공간으로 전위시켜 스스로 重力에 의해 감금되는 장소로 인지한다. 자기의 존재가 囚人처럼 인식하기도 한다. (허미자, 『한국여성문학연구』, 태학사, 1996, 137쪽)
- 2)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 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화회, 1999, 17-18쪽 참조.
- 3) 女子가 六歲에 始習女工之小者하고 七歲에 誦孝經論語하고 九勢에 講解論語孝經及 女戒之類하여 略曉大意니 今人이 惑敎女子以作歌詩하며 執俗樂하나니 殊非所宜也이니라. (昭惠王后 韓氏, 李民樹 譯, 〈母儀章〉, 『內訓』, 흥신문화사, 1992, 164쪽)
- 4) 송덕봉은 洪州宋氏로 丹城縣監 宋駿의 女息이며 중종 16년 1521년 12월 20일 담양에서 태어났다. 眉巖 柳希春(1513-1577)과 결혼한 것은 송덕봉의 나이 16세 때 중종 31년 1536년 12월 11일이다. (이백순 역, 『다시읽는 미암일기』 제5집, 담양군, 2004, 291쪽 참조; 한성금, 「16세기 사족녀의 한시에 나타난 사유와 표현양상」,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학회, 2015, 297쪽 참조) 그녀의 일상은 『미암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덕봉의 자는 成仲, 이름은 鍾介, 德峰은

는 25수가 전하고 삼의당 시는 111편 253수(남편의 시 포함)⁶⁾가 전한다. 삼의당 시에 비해 송덕봉의 시는 산실 되고 25수밖에 전하지 않고 있지만 『미암일기』를 통해서 그녀의 시적 사유방식과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유교주의의 규범 안에 살았지만 수용방식에서 작품의 표출 양상은 달라진다.

2.1. 송덕봉의 유교적 명분과 능동적 삶

조선 전기의 여성의 법적 지위는 후기에 비해서 남녀가 거의 평등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혼속과 재산상속 등을 통해 알 수 있다.⁷⁾ 조선 중기 여성 삶의 사회적 환경은 유교적 윤리규범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자 여성들의 자유로웠던 생활 습속을 규제하였다. 부녀자들의 사찰 출입과 문밖 외출 등 여러 가지를 통제하였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 실제적인 확립을 보기 시작했고⁸⁾ 송덕봉이 살았던 당시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렇지만 점차 “양반가의 여성들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변모되어 갔다.”⁹⁾

16세기의 송덕봉은 『미암일기』를 쓴 유희춘의 부인이다. 유희춘은 19년의 합

호이다. 종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호칭 시에 호나 자를 많이 사용한 전통시대의 특징으로 덕봉이라는 호가 이름을 대신하여 널리 알려져 왔다. (안동고, 『국역 덕봉집』, 심미안, 2003, 11쪽)

- 5) 낭군이 내가 거처하는 집에 ‘三宜堂’이라 편액을 걸었다. 삼의당의 벽에는 옛날의 열녀·정부·효자·충신의 서화가 가득하고 섬들에 돌린 꽃과 나무는 모두 모란·작약·소나무·대나무·난·국화뿐이다. 낭군이 시를 지어 화단에 붙였으므로 내가 화답하였다. [夫子扁我所居曰三宜堂書滿壁惟古之烈女貞婦孝子忠臣花卉繞砌惟牡丹芍藥松竹蘭菊夫子賦詩題其塢妾和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 6) 삼의당의 문집은 그녀가 죽은 후 1930년에서야 비로소 『三宜堂金夫人遺稿』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1950년에 『조선역대여류문집』에 문집의 전 작품이 수록되어 세상에 소개됐다. 그녀의 문집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는 한시 2권에는 산문이 실려 있다. 1권에는 시 111편 253수의 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5수는 남편 하립의 작품이다. 2권에는 書, 序, 祭文 등의 산문 26편이 있다. (허경진 역, 『三宜堂 金氏 詩選』, 평민사, 2008, 126쪽) 본고에서 인용한 삼의당 시는 李月英 譯, 『三宜堂金夫人遺稿』(신아출판사, 2014)를 원본으로 하였다.
- 7) 김은아, 「여성과 법, 제도; 조선전기 여성의 법적 지위」,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19권,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2009, 7쪽 참조.
- 8)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116-122쪽; 한성금, 「미암 유희춘의 여성인식」, 『동아인문학』 38집, 동아인문학회, 2017, 6쪽 참조.
- 9) 김명희 외, 『조선시대 여성문화와 사상』, 이화, 2003, 21쪽.

경도 종성의 유배생활을 비롯하여 서울에서의 벼슬 생활 등 오랜 세월 부인 송덕봉과 떨어져 살았다. 송덕봉은 담양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런 아내에게 유희춘은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였다. 송덕봉의 시는 25수정도 남아 있지만 1571년 그녀의 나이 51세 때 처조카 송진을 시켜 38수를 엮어 『덕봉집』으로 묶었다.¹⁰⁾ 송덕봉은 유교주의 규범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송덕봉에게 있어 유교적 규범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명분이었다. 16세기 사족의 부인으로서 송덕봉은 열린 시각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문학활동에 대해서도 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당당함과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다.'¹¹⁾ 송덕봉의 이러한 삶 뒤에는 사회적으로 가부장적 체제가 완성되지 않아서 여성의 규제가 강화 되지 않을 때이고 가정적으로는 남편 유희춘의 부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사랑이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¹²⁾ 송덕봉의 삶은 생활시로 형상화되어 표현되었는데 그녀의 시적 지향의식은 가족의 和樂이었다. 송덕봉의 시에는 절기에 자녀와 시누이를 불러 詩會를 열어 가족과 정을 나누거나 자식을 격려하는 내용, 남편과 소통하는 시가 있다. 특히 그녀의 시 중에는 남편과의 수창시를 비롯하여 남편에 대한 시가 많다. 〈和詩〉, 〈次重九小酌韻〉, 〈眉巖升嘉善作〉, 〈詠東堂贈眉巖〉, 〈戲和眉巖韻〉, 〈和答〉, 〈喜新舍〉 〈次眉巖韻〉 등이 있다. 남편에 대한 시에는 늘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쉬움 속에 잔잔한 그리움을 단백하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시적 표현은 사족의 부인으로서 유교적 규범을 넘지 않고 사대부 부인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있다. 박무영에 의하면 "조선시대 여성 한시작가들은 시적 표현에서 다양한 말하기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여성 한시 작가들이 처했던 언어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 가치는 매우 적극적인 것이 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언어적 전략 속에 숨은 현실적 상황과 말하기 사이의 긴장관계가 이 시들을 생명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10) 신미년(1571, 선조 4), 4월 11일 『미암일기』에는 "송진이 쓴 자신의 시를 보았다며 아주 기쁘다고 하였고 더욱이 자기의 시가 없어지지 않고 전해지게 되어 희비가 교차된다고 했다."는 송덕봉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11) 안동교 외, 앞의 책, 13쪽 참조.

12) 한성금, 「미암 유희춘의 여성인식」, 『동아인문학』 38집, 동아인문학회, 2017, 3쪽 참조.

‘시적 긴장’의 핵심요소가 된다.”¹³⁾고 하겠다. 다음의 송덕봉 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유교적 부덕의 명분을 드러내고 있다.

行行遂至磨天嶺	걸고 걸어 마천령에 이르니
東海無涯鏡面平	동해는 평평한 거울처럼 끝이 없네.
萬里婦人何事到	부인의 몸으로 만리 길 어찌 왔나
三從義重一身輕	삼종의리 중하니 이 한 몸 가볍네.

〈磨天嶺上吟〉¹⁴⁾

이 시는 송덕봉이 남편의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을 찾아가면서 마천령 고개 위에서 지었다. 남편 미암 유희춘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지만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 여성으로서 남편의 유배지까지 찾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죄씨를 잘 모시고 가정을 지켜 나갔다. 시어머니 삼년상이 끝나자 멀리 있는 남편을 과감하게 찾아간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에 대한 ‘想思’의 단어는 한마디도 없다. 다만 유교적 규범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행간에 숨어 있다. 여자의 몸으로 전라도 담양에서 함경도의 험난한 오지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3연에서 ‘부인의 몸으로 어찌 왔나’라고 자문하지만 4연에서 ‘삼종의 의리’라는 유교적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다음의 시는 아들 경렴과의 수창시이다.

(가)

孤羊攀石壁	외로운 양 석벽에 매달려
舐雪耐嚴寒	눈을 핥으며 혹독함 견디네.
骨露毛雖落	양상한 뼈에 털은 비록 빠졌지만
春來意自歡	봄이 오면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戲贈羅袖〉¹⁵⁾

13) 박무영, 앞의 논문, 16쪽.

14) 유희춘, 『미암일기초』 5.

(나)

莫言羊石壁	양이 석벽에 있음을 말하지 말라.
有志忍酸寒	뜻이 있어 시리고 차가움 견디네.
苦盡甘須到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마땅히 이르니
春風與柳歡	봄바람 버들과 더불어 즐기리라.

〈次男韻〉¹⁶⁾

(가) 시는 아들 경렴이 察訪의 벼슬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비단옷을 드리고 시를 쓴 것이다. 경렴은 아버지에 비해 높은 벼슬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열등의식이 있었다. 석벽에 매달린 외로운 양은 경렴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데 자신을 폄하하고 있다.

(나) 시는 송덕봉이 갑술년(1574) 정월에 아들 경렴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경렴은 유희춘의 아들이자 김인후의 셋째 사위이다. 『미암일기』에 보면 유희춘은 아들이 늘 자신의 눈높이에 차지 않아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렴은 음식으로 참봉을 거쳐 찰방자리를 얻었다.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아버지와는 달리 송덕봉은 “말직이기는 하지만 백의로 돌아온 것보다는 낫다.”¹⁷⁾고 대견해한다. 송덕봉은 뜻이 있어 차가움 견디는 양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나면 따스한 봄날을 맞을 수 있다고 시를 통해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다. 부정어와, 명령어 사용으로 강한 어조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단호함이 보이는 시이다.

송덕봉의 시는 일상을 소재로 하였는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작품이 많다. 그녀의 가족들은 절기를 맞아 詩會를 자주했는데, 가족들이 서로 시를 지어 축하하고 즐거움을 나누었다. 〈端午與吳姊會新舍〉, 〈重陽日族會〉, 〈與尹壻光龍小酌〉, 〈次重九小酌韻〉 등에 표현되어 있다. 송덕봉 역시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사대부 여성상이 있었고 그 범위를 넘지 않았다.

15) 유희춘, 『미암일기초』 5.

16) 유희춘, 『미암일기초』 5.

17) 吾兒雖未職 猶勝白衣來. (송덕봉, 〈重陽日族會〉, 유희춘, 『미암일기초』 5)

2.2. 삼의당의 유교적 체득과 긍정의식

三宜堂 金氏¹⁸⁾(1769, 영조 45-1823, 순조 23)는 조선 후기의 한시 작가이다. 대부분 조선시대 사대부 부인들의 시적 표현은 유교적 규범에 의해 한계가 있지만 삼의당의 시는 ‘여성적 말하기’에서 벗어난 시와 ‘여성적 말하기’¹⁹⁾ 시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즉 유교적 부덕을 나타낸 시적 표현은 사회가 요구하는 타자로서의 말하기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적 규범에 의해 제한되었던 범위를 뛰어넘는 여성적 섬세함과 내면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솔직한 말하기이다.

그녀가 살았던 조선 후기에는 종법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강화와 여성의 순결과 순종의 강요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는 더욱 불평등한 지위로 변질되었던 시기이다.²⁰⁾ 삼의당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유교사상을 체득²¹⁾하여 당시의 여성작가들이 겪었던 자아분열을 겪지 않는다. 이러한 유교적 규범은 삼의당에게 사대부 여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었다. 삼의당의 시대는 조선 후기의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고 남편마저 과거 준비를 위해 부재중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으로서 그녀는 머리를 자르고 비녀를 팔아 남편을 내조했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꾸려갔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두 명의 자식마저 잃었다. 그러나 삼의당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 힘든 생활에서도 늘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다. 이것은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사대부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했다.

18) 전북 남원 서봉방에서 燕山代의 학자 濯纓 金駟孫의 후손 金仁赫의 딸로 태어났다. 삼의당은 18세가 되던 해(1786)에 같은 마을에 살던 ‘同年同月同日’에 태어난 漑樂堂 하립과 결혼하였다. 고향인 남원에서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1801년(순조 원년) 진안군 마령면 방화리로 이주하였다. (朴堯順, 「三宜堂과 그의 詩 研究」, 『韓南語文學』 제11집, 韓南大學校 韓南語文學會, 1985, 20쪽 참조) 여성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그녀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남편이 지어준 ‘삼의당’이라는 당호만 전한다.

19) 박무영은 예쁘고 화사하고 순한 것으로 규정되는 여성적 어조의 글, 지분기-화장냄새 묻은 문체를 ‘여성적 문체에 대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무영, 앞의 논문, 21쪽)

20) 김은아, 앞의 논문 6쪽 참조.

21) 生長沈閨裏/窈窕守天性//曾讀內則篇/貫知家門政//於親當盡孝/於夫必主敬//無儀亦無非/惟順以爲正[김은 규방 안에서 자라서/요조숙녀의 천성을 지키고//일찍이 내칙 편을 읽어/가문의 다스림 잊혀 알았네//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고/남편에게는 반드시 공경해야지//잘하는 일도 없고 역시 못하는 일도 없이/오직 순종이 바른 몸가짐이네](《笄年吟 2》,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가)

出於性情方爲詩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 시가 되니
見詩固可其人詩	시를 보면 본래의 그 사람을 아네.
存諸中者形諸外	심중에 모든 것이 밖으로 나와
雖欲欺人焉得欺	비록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네.

〈讀書有感 3〉²²⁾

(나)

人如不孝豈云人	사람이 불효하면 어찌 사람이라 이를까
臣若非忠罔是臣	신하가 충성하지 않으면 신하가 아니네.
能孝能忠吾罕見	효도하고 충성하는 이를 나는 못 보았으니
世間都自賊其身	모든 세상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망치네.

〈讀書有感 7〉²³⁾

〈讀書有感 3〉에서는 시란 성정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 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율곡의 시관도 ‘詩本性情’의 성정론에 비중을 두었으며 ‘貫道之器’로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의당의 문학적 인식은 당시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문학관과 상통하고 있다. 이것은 삼의당의 철저한 유교적 사상의 체득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고자 하는 詩作 태도이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사대부들의 시적 표현으로 드러낸 것은 여느 여성 작가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讀書有感 7〉 역시 ‘孝’와 ‘忠’에 대한 주제이다. 여성적 글쓰기에서는 잘 인용하지 않은 ‘충’을 시적 제재로 삼았는데 여성적 사고를 넘어서는 공적 영역이다. 이와 같은 주제는 삼의당의 삼강오륜의 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철저한 유학적 사상과 女士的 의식이다. 이것은 삼의당의 폭넓은 독서의 영향도 있지만 몰락 양반가의 며느리로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대화

22)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23)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나 시적 표현에서 ‘孝’와 ‘悝’은 자주 인용하는 주제였다. 삼의당의 유학적 사상을 드러낸 시에는 〈無題 2〉, 〈陪夫子唱酬〉, 〈筭年吟〉, 〈讀書有感〉, 〈教訓內則〉 등이 있다.

다음의 시에서도 삼의당의 긍정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附夫子詩〉에서 “나는 문효공의 후예이고 그대는 탁영공 자손이지요. 선조 추억하다 눈물 흐르니 한 시대 두 가문이 영락했구려.”²⁴⁾라는 시를 남편인 담락당이 읊었다. 여기에 대한 답시로 삼의당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逮子之躬十二世	당신께 이르러 십이 세이니
文孝家中忠孝孫	문효 집안에서도 충효한 자손이네요.
何患乎今零替久	오래도록 쇠했다고 어찌 근심하나요
積善先祖已高門	선을 쌓은 선조 이미 높은 집안이었지요.

〈和夫子詩 1〉²⁵⁾

〈附夫子詩〉에서는 남편 담락당이 쇠락한 자신의 집안과 처가를 생각하니 울적하였다. 그러나 삼의당은 〈和夫子詩 1〉의 3구와 4구에서 ‘선을 쌓은 선조 대에 이미 높은 집안이었는데 왜 근심하느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남편을 위로하는 시를 읊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남편이 과거에 떨어졌을 때도 율시 한 수를 지어 남편을 위로하였다.

聞道京華屋	들으니 서울의 화려한 집에는
方今學士多	지금도 학사가 많다네요.
文詞粧錦繡	문장은 비단에 수놓은 듯 단장하고
風化蕙菁莪	풍화는 청아가 무성하다지요.
才敵歐蘇否	재주는 구양수와 소동파에 맞서고
詩如李杜何	시는 이백 두보와 같다고 하면 어떠리.
聊將五老筆	오로봉 빌어다 붓으로 삼고

24) 我是文孝公後裔 子又濯纓公之孫 追想先世因感涕 一代零替兩家門. (〈附夫子詩〉,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25)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掀挽漢江波

한강물 끌어다 글을 쓴다고 하지요.

〈夫子久有不得意...〉²⁶⁾

이 시의 제목은 굉장히 길다. “남편이 오래도록 외지에 나가 공부했으나 뜻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자 내가 위로하여 말했다. 부귀는 하늘에 있으니 과거급제를 한 번에 오를 수 없고 궁달도 때가 있으니 뜻도 한 번 행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일을 마침내 이를 것이니 다시 학업을 부지런히 해서 다시 과거에 응시하십시오. 서울 화려한 문장의 성대함에 관해 듣고 즉시 읊시 한 수를 읊었다.”²⁷⁾고 했다. 답락당은 10여 년을 과거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낙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삼의당은 자신의 욕망과 자존감이 무너졌지만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그녀의 유교사상의 체득 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음의 시는 전원생활에서 그녀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지은 시이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蕭然茅屋兩三間
其上青山不厭間
又有黃鳥啼盡日
滿窓風景主人閒

고즈넉한 모옥에 방이 두세 칸
청산이 아무리 봐도 싫지를 않네.
피꼬리까지 종일 울어대니
창에 가득한 풍경 보며 주인은 한가롭구나.

〈草堂卽事 1〉²⁸⁾

이 시는 초당에서 보이는 경치를 읊은 내용이다. 두세 칸 초가집이 산으로 둘러 싸인 곳이지만 필자는 시골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한가한 심상이다. 사족의 부인으로서 시골에 살지만 초조함이나 불안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적 표현은 우선 남편의 과거 포기로 인한 부담감에서의 해방과 남편과 함

26)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27) 夫子久有不得意 及歸 余慰之曰 富貴在天 雲宵不可一蹴而上 窮達有時 志業不可一行而決 只是有志者事竟成 更加勸業以圖再舉 憑聞京華文章之盛 卽吟一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28)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계하는 작가의 심적 안정이다. 그러나 부덕으로 감싸고 있던 삼의당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규원의식을 표출한 시가 바로 남편의 부재 시에 지어진 시이다.

3. 부부관 인식과 시적 표현

두 사람은 유교적 규범 안에서 생활시를 써 왔기 때문에 배우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시적 지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3.1. 주체적 인정과 절제

16세기 송덕봉은 혼인 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매우 진보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모습이었다.²⁹⁾ 조선 중기를 살았던 송덕봉 부부는 부부애가 남달랐다. 남편 유희춘의 부인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기도 하였지만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부부의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동등한 인정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주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부관계를 형성하였다.

송덕봉은 오랜 세월 남편과 떨어져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에는 규원의식이나 恨 등이 표현되지 않았다. 1571년 12월 2일자 『미암일기』에는 “부인의 글 속에 홀로 지내며 한탄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꾸짖으며 풀어주었다.”³⁰⁾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오래 헤어져 살아야 했던 여성으로서 외로움과 아픔이 없었을 수 없었겠지만 송덕봉은 사족의 부인으로서 품격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의 부재 속에서 가정을 지켜왔고 홀로 계신 시어머님을 잘 봉양하였다. 유희춘은 부인의 지혜로움에 대해 신뢰했으며 무한한 애정을 보였다. 송덕봉 역시 남편을 동등한 詩友로서 대했다. 비록 송덕봉의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남편에게는 첩이 있고 때때로 기생을 가까이 하였다.³¹⁾ 16세기 양반 남성들이

29) 한성근, 「16세기 사족녀의 한시에 나타난 사유와 표현양상」,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학회, 2015, 297쪽 참조.

30) 夫人書有獨在之嘆余責而解之. (『미암일기초』 3, 신미년, 1571년, 12월 2일)

부인 이외에 첩을 두는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었다.³²⁾ 그러나 송덕봉은 그 이유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고 남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였다. 송덕봉은 첩의 가족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였다.³³⁾ 때때로 첩이 송덕봉에게 불손하게 대하기도 하였지만 남편의 옷을 짓게 하거나 가족의 행사에 그릇을 빌리는 일 등 첩의 가족도 포용하였다.

사족녀로서 송덕봉의 부부 사이의 애정시에는 감정의 선을 넘지 않았고 절제와 품위를 지켰다.

(가)

菊葉雖飛雪	국화잎에 비록 눈이 날지지만
銀臺有煖房	은대엔 따뜻한 방이 있겠네요.
寒堂溫酒受	찬 방에서 따뜻한 술을 받아
多謝感充腸	창자를 채우니 무한 감사하네요.

〈和詩〉³⁴⁾

(나)

莫誇和樂世無倫	화락함이 세상에 짝이 없다 과시하지 말고
念我須看斷石文	나를 생각해 반드시 착석문을 보세요.
君子蕩然無執滯	군자는 막힘없이 광대하여야 하니
范君千載麥舟云	범공의 맥주를 천년 뒤에 이르소서.

〈次眉巖韻〉³⁵⁾

31) 이 시기 사대부들은 보편적으로 첩을 두고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미암일기』에 보면 유희춘을 비롯한 사위와 아들이 모두 첩이 있었다. 남편의 혼외 관계로 인해 부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시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미혜,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 양식」, 『한국여성학』 18권, 2002, 19쪽 참조)

32) 정창권, 『홀로 베풀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201쪽 참조.

33) 미암의 첩은 미암보다 15세 아래인 '무자'라는 이름의 방긋덕으로 혜성, 해복, 해명, 해귀의 네 명의 딸을 낳았다. 1574년 2월 26일 일기에는 "부인이 혜성이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정이 궁핍할까 싶어 5승목 2필을 주었다.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지극하다."고 하였다.

34) 유희춘, 『미암일기초』 2, 기사년, 1569년, 9월 2일 참조.

35) 유희춘, 『미암일기초』 5.

(가) 시는 미암 유희춘의 시에 차운한 송덕봉의 시이다. 『미암일기초 2』에는 1569년 9월 1일, 미암 유희춘은 궁궐 승문원에서 6일 동안 숙직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금이 하사한 모주 한 동이를 시 한수와 함께 부인에게 보냈다. 미암이 지은 시 〈母酒一盆送于家遺成仲〉은 “눈 내리고 바람 더욱 차가운데 찬방에 앉아있을 당신 생각하오. 이 술 비록 품질이 낮지만 언 창자 따뜻하게 할 수 있으리”³⁶⁾라고 아내에게 애정이 가득 담긴 시 한 수를 써서 송덕봉에게 보낸다. 송덕봉은 고마운 마음으로 답시를 쓰며 화답하였다. 남편의 사랑의 징표인 술을 받으면서도 그냥 고맙다는 말로 일상어처럼 가볍게 시로 표현하였다. 동시대를 살았던 허난설헌의 〈寄夫江舍讀書〉³⁷⁾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김성립이 강사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허부인이 시를 지어 보내니 시가 유탕에 가깝기 때문에 시집 속에는 실지 않았다고 했다.³⁸⁾ 난설헌의 남편에 대한 표현에 사대부들은 부덕이 없는 부인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사회적 시각 때문에 사대부 여성들은 절제된 시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 시는 송덕봉이 친정아버지 묘소 앞에 비석 세울 일을 도모하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글이다. 1571년 유희춘이 전라 감사에 제수되자 그는 공직자로서 사사로운 일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 비석을 세우라고 하였다. 송덕봉은 〈착석문〉에서 “당신은 나의 지음으로서 스스로 거공에 견주며 함께 늙자고 했으면서 겨우 4, 50 말의 쌀이면 공역을 끝낼 수 있는데 귀찮게 여기시니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³⁹⁾라고 남편에게 화를 내며 도움을 촉구하는 글이다. 옳다고 생각한 자신의 뜻을 남편이 따르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할 말을 당당하게 하였다. 결국 유희춘은 이 시와 글을 보고 매우 탄복했으며 장인의 비석 세우는 일을 도와주었다. 동등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부부 사이를 드러내고 있다.

36) 雪下風增冷 思君坐冷房 此醪雖品下 亦足煖寒腸. (〈母酒一盆送于家遺成仲〉, 『미암일기초』 5)

37) 燕掠斜簷兩兩飛/落花繚亂撲羅衣/洞房極日傷春意/草綠江南人未歸(추녀를 차지하고 쌍쌍이 드나드는 제비/고운 날개 부딪히며 꽃잎 마구 떨구네/동방서는 눈 빠지도록 애타는 마음/강남에 풀 푸르네 임은 돌아오지 않네)(許蘭雪軒, 〈寄夫江舍讀書〉, 『蘭雪軒集』)

38) 김명희, 『허부인 난설헌시 새로 읽기』, 이희, 2002, 467쪽.

39) 況君我之知音 自此蛭蛩而偕老 不過費四五斛之米 工可訖功而厭煩之 此痛憤慾死. (〈斷石文〉, 유희춘, 『미암일기초』 5)

다음의 시는 자연을 담담하게 묘사한 내용이다.

清風生雨後	비 온 뒤에 부는 맑은 바람
皓月露雲間	구름사이 드러나는 환한 달.
促織雖鳴咽	귀뚜라미 목이메어 울지만
今宵幸得閑	오늘 밤은 다행히 한가하네.

〈卽景〉

이 시는 『미암일기초 5』에 수록되어 있다. 어느 해 8월 12일 밤에 읊은 시이다. 비가 그치고 난 후 부는 시원한 바람과 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밝은 달빛, 귀뚜라미가 우는 정겹고 평화로운 밤 풍경이 묻어난다.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져 여름날 풍경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자연을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의 자연관조의 시에는 〈詠雪〉, 〈卽景〉 등이 있다. 송덕봉 시에는 이와 같이 일상을 넘지 않은 생활시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조선 중기를 사는 사대부 여성으로서 심적인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의 시에는 규방 부인으로서 송덕봉의 답답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天地雖云廣	천지가 비록 넓다고 말하지만
幽閨未見盡	깊은 규방에선 다 볼 수 없네.
今朝因半醉	오늘 아침 반쯤 취하고 나니
四海闊無津	사해는 트여 막힘이 없네.

〈醉裏吟〉⁴⁰⁾

이 시는 신미년(1571) 12월 2일에 지은 것으로, 『미암일기초 5』에 수록되어 있다. 아무리 유교적 규범 안에서 살았지만 그녀 역시 좁은 규방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사족의 부인으로서 유교적 규범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또는 조선 중기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과 20여 년을 떨어져 살았을지라도 한 번도 규원을 읊지 않았다.

40) 유희춘, 『미암일기초』 5.

다만 답답할 때는 술을 조금 마시고 심중에 남아 있던 생각들을 시로 표현할 뿐이다. 『미암일기』에는 미암의 부인 송덕봉이 빚은 술이 맛있다는 표현들이 적혀 있고 송덕봉이 술에 취하면 시를 쏟아낸다⁴¹⁾고 미암 유희춘의 시에 표현되어 있다. 송덕봉의 시는 유교적 규범을 넘지 않고 절제된 시어를 사용하였다.

3.2. 상대적 존재와 다양성

조선 후기 삼의당의 한시는 남편의 존재와 부재 사이에 시적 표현이 달라진다. 따라서 삼의당의 남편은 삼의당의 시작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삼의당은 일상에서 취한 소재로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였는데, 시의 주제 또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남편은 삼의당의 문학적 표현에서 시적 동력이었고 원천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가부장제가 더욱 강화되고 여성들은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문학적 양상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반윤리적인 행동의 주체는 그녀들과 같은 양반 여성이 아닌 하층여성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⁴²⁾ 따라서 사대부 여성들은 하층민과는 다른 존재인 차별적 타자로 시적 언어에서 거리감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들은 양반 사대부의 부인으로서 사회의 규범 안에 있고자 했다. 그런데 삼의당은 유교적 규범을 체득하고 살았음에도 규범에서 벗어난 솔직한 시를 표출하였다.

삼의당의 삶에서 남편의 행보는 그녀 자신의 감정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삼의당은 그녀의 유고집 〈自序〉에서 “다만 뜰 안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또 지내는 대로 혹은 말로 혹은 시로 남겨 느낀 감정대로 써 놓은 것”⁴³⁾이라고 하여 자신의 생활공간에서의 일들이 시적 소재 선택과 관계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삼의당 부부 사이에는 부부 수창시들이 있는데 화답시에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41) 喜君醉裏辦詩城/崔峯驚看雲外靑/京洛風光雖最好/不如歸去饌前榮(당신이 술에 취해 시의 성을 쏟아내니/구름 밖 높은 하늘을 놀라 바라보네/서울 풍광이 비록 좋다고 한다지만/집으로 돌아와 밥상 앞 영화만 같지 못하네)(유희춘, 〈次韻〉, 『미암일기초』 5)

42) 주정희, 「조선후기 시가의 하층여성 형상과 문학적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년, 59쪽.

43) 但將戶庭內所見聞歷 感言感詩 任情染毫. (〈自序〉, 『三宜堂金夫人遺稿』 1권)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만남을 하늘의 인연으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삼의당의 남편인 담락당 하립은 삼의당에 대해 “지금 내 부인은 한 번 들으면 선함을 듣는 방도를 알게 되고 두 번 들음에 선악의 구별을 알게 되었으니 가히 만물을 관찰하는 재주가 있다.”⁴⁴⁾고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애정적 주체로 인정하였다. 삼의당은 조선 후기 몰락한 지방 양반가문⁴⁵⁾의 사족의 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유교정신을 가슴 깊이 수용하고 있었다.

삼의당 한시의 시적 소재로는 유교적 사상을 반영한 것, 閨怨, 자식, 목가적인 전원생활 등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교감을 섬세한 감성으로 묘사하여 다양한 작품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삼의당은 1769년 남원 서봉방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했다. 그녀의 남편 담락당 하립의 인간관을 보면 <晉陽河氏 孝子傳>⁴⁶⁾에 잘 드러나 있다. 담락당 하립은 용모와 언사의 뛰어남과 인간 관계도 원만했음을 알 수 있다.

配匹之除生民始	배필의 만남이 생민의 시작이니
君子所以造端此	군자들이 이것을 만든 까닭이네오.
必敬必順惟婦道	공경함과 순종함이 오직 부인의 도리니
終身不可違夫子	종신토록 남편의 뜻 어기지 않으리라.

〈同里有河氏...〉⁴⁷⁾

이것은 남편의 시에 화답한 삼의당의 시로써 “첫날밤에 낭군께서 잇달아 절구

44) 今吾夫人一聽而知其聞善之方 再聽而知其善惡之別 可謂觀物有術矣. (《聞鶯記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45) 三宜堂의 媿家가 된 河氏一門은 晉陽河氏로 世宗代 領議政을 지낸 바 있는 敬齋河演은 淇樂堂의 十二代 先祖가 된다. 이들 一門은 원래 河敬齋以來 京畿 安山에서 世居했었으나 後에 全羅道 南原 鳳棲坊으로이주해 살다가 삼의당과 결혼하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2대조 演은 世宗朝에 영상의 자리에 오른 바 있으나 이후를 보면 7代祖 菁川 應臨이 校理를 지낸 외에는 曾祖父 慶潤, 祖父 漢澄, 父親 經天 등은 경학에 전심했던 분들이나 향반으로 백두의 생을 보낸 분들이었다. (朴堯順, 앞의 논문, 20쪽)

46) 纔華愈美 風彩 甚偉 吐詞壓座 接人服心 嘗遊漢師 名宰碩儒聞風願交 一見相許. (東萊 鄭鍾燁, <晉陽河氏 孝子傳>)

47)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두 수를 읊기에 내가 이어서 화답하였다.”라고 한 初夜唱和 가운데 하나이다. 남편이 18세의 삼의당에게 결혼 첫날밤에 준 〈附夫子詩〉는 ‘부부의 도는 인륜의 시작으로 가족의 화목이 삼의당에게 달렸다.’고 아내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다.⁴⁸⁾ 이에 삼의당은 初夜唱和를 읊어 아내로서 공경과 순종으로 남편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禮成夜記話〉를 보면 결혼 첫날 밤에 삼의당의 남편인 담락당 하립은 자신의 뜻을 평생 따를 것이며, 비록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따를 것인가?를 물었다. 삼의당은 “낭군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바는 어찌 그 허물까지 쫓겠다고 것을 말씀드린 것이겠습니까?”⁴⁹⁾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남편을 따르더라도 잘못된 것까지 따를 수 없다는 삼의당의 삶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유학의 기본요소인 공경과 순종을 강조한 유교적 사고로 삼의당이 얼마나 유교 정신에 입각해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삼의당의 유교적 사고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유학 경전을 읽어⁵⁰⁾ 그녀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으며 그녀의 시 창작과정에서 원용되었다. 이러한 시적 표현은 당시 사회적 현실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표현이었으며 삼의당의 지향의식의 하나인 유교적 내면의식이 작품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滿天明月滿園花	하늘 가득 달이 밝고 정원에 꽃이 가득하니
花影相添月影加	꽃그림자 달그림자 서로 더하네.
如月如花人對坐	달 같고 꽃 같은 임 대하고 앉으니
世間榮辱屬誰家	세상 영욕 누구 집 이야기인가?

〈奉夫子夜至東園月色正好花影滿地夫子吟詩一絕妾和之〉⁵¹⁾

이것은 남편의 〈附夫子詩〉에 대한 운을 취해 지은 시이다. 남편은 “삼경의 밝

48) 夫婦之道人倫始 所以萬福原於此 試看桃夭詩一篇 宜室宜家在於子. (〈附夫子詩〉,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49) 然則吾所謂不可違夫子者 豈謂其從夫之過歟. (〈禮成夜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50) 余亦湖南之愚婦 生長深閨 雖不博考經史 嘗以諺讀解小學 推通文學 略涉諸家. (〈自序〉,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51)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은 달빛 아래 봄꽃도 한창인데, 꽃이 화려한 데다 달빛까지 더하였네. 달 따라가며 꽃구경 하니 임도 따라와, 보기 드문 광경이 우리집에 இரு려.”⁵²⁾라는 〈附夫子詩〉 절구 한 수를 먼저 읊었다. 이에 운을 따라 삼의당이 쓴 답시이다.

신혼시절의 삼의당이 남편과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정원에서 달빛을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봄밤의 풍경을 읊고 있다. 1-2구는 달빛 쏟아지는 밤 사랑하는 이와 정원을 거니는 모습을 묘사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3-4구에서는 달 같고 꽃 같은 남편과 함께하니 세상의 영욕도 필요치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남편을 달과 꽃에 비유하고 있다. 환상적이고 충만한 그녀의 행복의 원인은 곁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엄연히 하는 일이 다름을 삼의당은 인식하고 있다. 다음 시는 〈笄年吟 3〉의 5-8구이다.

男不言乎內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女不言乎外	여자는 바깥일을 말하지 않네.
內外既有別	여자 남자 분별 이미 있었으니
當遵聖人戒	마땅히 성인의 훈계 따르리라.

〈笄年吟 3〉⁵³⁾

이 시에는 三綱五倫의 夫婦有別이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삼의당의 삶의 기준이며 가치관이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예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지배계층에서 서민에까지 영향을 주어 유교 이데올로기가 조선사회 전 계층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⁴⁾ 삼의당이 이해한 부부관계는 남편은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영역이 다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여 과거시험을 준비하게 한다. 남자라면 당연히 과거에 급제하여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기

52) 三更明月仲春花 花正華時月色加 隨月看花人又至 無雙光景在吾家. (〈附夫子詩〉,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53)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54) 김명희·박현숙 저, 『조선시대 여성 한문학』, 이화, 2005, 36쪽.

때문이다. “여성에게 폐쇄적인 조선사회에서 남편의 등과는 합법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 헌신적인 내조자로서 세상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자아실현의 방식이었다.”⁵⁵⁾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담락당은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산으로 떠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삼의당에게 있어 고통과 삶의 무게로 다가오지만 남편을 격려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한다. 생활시를 써온 삼의당에게 있어 남편의 과거시험은 중요한 시의 소재였다.

(가)

女兒柔質易傷心	여자들은 여려서 상심하기 쉬우니
所以相思每發吟	그리운 마음 늘 말하지요.
大丈夫當身在外	대장부는 마땅히 바깥일에 힘써야 하니
回頭莫念洞房深	머리 돌려 규방 속은 생각 말아요.

〈寄在京夫子〉⁵⁶⁾

(나)

死當乃已是吾心	죽어서야 그만둬야 내 마음이니
手裏詩書不絕吟	손에 시서 들고 읊기를 그치지 않네.
夜夜相思何處在	밤마다 그리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
美人端坐五雲深	미인은 오색구름 깊은 곳에 단정히 앉아 있네.

〈附夫子次韻〉⁵⁷⁾

(가)의 시는 삼의당이 서울에서 과거 시험 준비하고 있는 남편에게 보낸 시이다. 남편이 그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슬픔이나 그리움 등으로 시를 읊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다. 대장부라면 이런 나약한 생각보다는 바깥일에 활동적으로 일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녀의 다른 시에서도 “남아 대장부가 뜻을 위해 죽어야지 어찌 여인네만 그리워 하느냐”⁵⁸⁾고 남편을 강하게 일깨우고 있다.

55) 맹영일, 「삼의당 김씨의 한시연구」,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2009, 290쪽.

56)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57)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나)의 시는 삼의당 남편이 부인의 시에 차운한 차운시이다. 그는 과시 준비를 하면서도 그리운 부인을 생각하는 애정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편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다. 삼의당은 혼자서 가장의 역할을 하며 남편의 객비를 보내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님을 잘 모셨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후기 양반 지배계층에서는 관료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난국에 부딪혀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었던 당대의 여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다.”⁵⁹⁾ 1810년 9월 삼의당의 나이 42세가 되어서야 남편은 鄉試에 합격하고 會試를 위해 서울로 가지만 역시 낙방 소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삼의당은 남편의 과거 시험 준비로 인하여 10여 년을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삼의당 시의 주제는 규원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삼의당의 삶을 힘들게 한 것은 몰락한 양반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원생활에서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남편과의 헤어짐이었다. 그녀는 모범된 사족녀의 삶을 살았지만 부부의 애정에 대한 감정의 표출에 있어서는 대범하고 자유로웠다.

人靜紗窓日色昏	인적 고요한 사창에 날은 저물고
落花滿地掩重門	땅에 낙화 가득하고 중문은 닫혀 있네.
欲知一夜相思苦	하룻밤 상사의 고통 알고자 하면
試把羅衾檢淚痕	비단 이불 걷어 놓고 눈물자국 살피리.

(春閨詞 2)⁶⁰⁾

이 시는 삼의당의 남편이 과거 시험 준비로 집을 떠나 있을 때 삼의당이 지은 시인데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규원의 한이 가득 차 있다. 남편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자신의 나약한 면을 보이지 않고 격려하는 글을 보냈지만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시에서는 자신의 본심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는 ‘相思’라

58) 男兒當死志 何必戀紅裙. (〈夫子居山數年勤其業受父訓將入于京妾以詩贈之 1〉,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59) 주정희, 앞의 논문, 57쪽.

60)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는 직접적 시어를 사용하고, '落花'와 '淚痕' 등의 시어를 배치하여 '규원'의 恨을 표현하고 있다. <春景 1>의 시 역시 '桃花'와 '梨花'가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이지만 정작 자신과는 화려한 봄 경치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녀 곁에는 함께할 입이 없기에 거울도 보지 않고 봄날을 보낸다. <春閨詞 1>의 3·4수에는 “수양버들 문밖에 심지 마오. 인간에 이별 있어 증오 생겨나네요.”⁶¹⁾라고 표현하였다. <春閨詞> 18수에는 피맺힌 상사의 고통을 절절하게 표현하였는데 삼의당의 애절하고 서정적인 여인의 정감을 표현하고 있는 시는 <春惱詞>와 <秋閨詞>, <秋夜雨>, <秋夜月>, <西窓>, <鳥夜啼> 등에 잘 드러나 있다.

결국 남편은 과거를 포기하고 생활을 위해 전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다. 비록 과거의 포기로 삼의당의 욕망은 좌절되었지만 힘든 농촌 생활도 남편과 함께하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자연은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이다. 삼의당은 동일한 자연을 항상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이던 자연의 소재가 남편의 부재 시에는 괴로움의 마음을 투사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를 창작할 때의 작가의 심리에 따라 감정이 이입되는 자연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 감정 변화의 중심에 남편이 있었다.

(가)

夕陽離席坐芳陰	석양에 자리 깔고 꽃그늘 속에 앉으니
深樹幽禽又好音	깊은 숲속 새소리 더욱 좋네요.
濁酒三盃歌一曲	탁주 석 잔에 노래 한 곡 부르니
淸風明月主人心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주인의 마음이지요.

〈與夫子吟〉⁶²⁾

(나)

竹籬東畔早鷄鳴	대울타리 동쪽에 새벽닭이 울면
在家農夫出畝耕	집에 있던 농부들이 밭갈러 가네
小姑汲水炊麥飯	며느리는 물 길어 보리밥 짓고

61) 莫將楊柳種門外 生憎人間有別離.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62)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大姑洗鼎作羹羹

시어머니 솥을 씻어 채소국 끓이네.

(夫子於山陽買田數頃勤力稼穡妾作農謳數篇以歌之 4)⁶³⁾

이 시는 삼의당이 남편과 함께 진안으로 이거하여 농사를 짓던 때 지은 시이다. 삼의당의 남편은 과거에 등과하지 못하자 삼의당에게 진안으로 이거하여 살자고 건의하였다. 삼의당이 33세 되던 1801년 진안군 마령군 방화리로 이주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다.⁶⁴⁾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접한 자연은 삼의당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가) 시는 남편과의 수창시로서 전원생활의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남편과 함께 꽃그늘에 자리를 펴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나무위의 새들의 지저귀음을 듣고 있는 작가는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이다. 이것은 삼의당 부부의 자족적 삶의 공간으로서 자연과의 물아일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삼의당은 과거시험 포기로 인한 신분 상승의 욕구를 전원생활에 대한 자족적 삶으로 승화시키며 자연 친화적인 지향의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나) 시 역시 전원의 일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감정의 절제를 통한 대상의 객관적 묘사로 생활 현장의 생생한 장면의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다. “18세기에는 자연 경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았을 때 시인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적 묘사이다.”⁶⁵⁾ 삼의당의 전원생활의 자연 묘사에서 새벽 닭이 울면 농부들은 일하러 나가고 며느리는 물을 길어 보리밥을 짓고 시어머니는 아욱으로 국을 끓이는 부엌의 풍경이 한 편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이다. 현실의 비탄의식이 표출되지 않고 지극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이다. “고전시에 있어서 시의 언어는 곧 행동이자 경험”⁶⁶⁾으로서 표현되는데 삼의당의 농촌 생활은 그녀의 직접 체험이 묘사되어 생생하게 전달된다. 〈田家樂〉, 〈奉夫子見落花吟〉, 〈草堂卽事〉, 〈春日卽事〉, 〈村居卽事〉, 〈牧笛〉, 〈農

63)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64) 吾聞月浪之陽 萊東山下 地多寬 閑田有餘 優今往耕之 憂無養親 吾筮已決心也 子當從之乎. (〈聞鶯記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65) 안대희,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55쪽.

66)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89쪽.

歌), 〈夫子於山陽買田...〉 등은 자연에서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작품들로서 작가의 밝은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4. 결 어

이 글은 조선 중기의 송덕봉과 조선 후기의 김삼의당의 한시를 분석하고 작가의 삶의 방식과 문학적 지향의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송덕봉과 김삼의당의 의식 세계와 삶의 방식에는 삶의 지향점이 드러나고 이것은 곧 시적 작품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조선조 사대부 여성으로서 유교적 규범 속에 살았음에도 생을 비판하지 않고 능동적 삶을 영위하였다. 즉 사회가 원하는 모범된 삶을 살았고 격조 높은 부부 수창시로 소통하였으며 자신만의 작품집을 남겼다. 두 사람은 몇 가지의 공통된 조건 속에서도 시적 표출 방법은 달랐다.

이들의 시적 지향의식의 하나는 유교적 규범의 수용이다. 16세기 사족의 부인으로서 송덕봉은 매우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부부생활과 자신의 문학활동에 대해서도 강한 자부심을 지녔다. 이러한 자부심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피력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을 일궈나가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서 중기의 유교적 규범의 느슨함과 남편의 지극한 신뢰와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녀의 시적 소재는 생활시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격려, 자신이 속한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 등이다. 이것으로 볼 때 송덕봉의 문학적 지향은 남편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었고 부부의 애정 표현은 담백하여 유교적 규범을 넘지 않았다. 조선후기의 삼의당은 유교적 규범을 철저히 체득하였고 긍정적 삶을 살았다. 그 안에서 삼의당 한시의 시적 소재로는 유교적 관념, 남편에 대한 애정, 閨怨, 자식, 목가적인 전원생활 등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교감을 섬세한 감성으로 묘사하여 다양한 작품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삼의당은 사회가 요구하는 유교적 규범 안에서의 말하기와 유교적 규범을 벗어나는 여성적 섬세함과 내면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솔직한 말하기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두 사람의 부부관 인식을 보면 송덕봉은 남편과 대등한 관계였고 주체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녀의 시에는 남편에 대한 잔잔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감정 표현의 절제가 있었다. 반면에 조선 후기 삼의당은 남편을 상대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삼의당의 삶에서 남편의 행보는 그녀 자신의 감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존재와 부재 시에 소재 인식과 시적 표현이 달라진다. 남편에 대한 지향 의식은 삼의당의 다양한 시적 소재와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특히 부부 애정표현에 있어서 유교적 규범을 벗어난 적극적이고 대범한 표현들은 양반 사대부 여성의 글쓰기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

유교적 규범의 수용방식과 부부관 인식은 두 사람의 시적 주제와 표현방식에서 차별성을 드러냈다.

참고문헌

1. 자료

三宜堂金夫人(李月英 譯), 『三宜堂金夫人遺稿』, 신하출판사, 2004.

柳希春, 『眉巖日記草』, 潭陽文化院, 1990.

柳希春(이백순 역), 『다시 읽는 미암일기』, 담양군, 2004.

2. 논저

김명희, 『허부인 난설현 시 새로 읽기』, 이회, 2002, 467쪽.

김명희·박현숙, 『조선시대 여성 한문학』, 이회, 2005, 36쪽.

김명희 외, 『조선시대 여성 문학과 사상』, 이회, 2003, 21쪽.

김은아, 「여성과 법, 제도: 조선전기 여성의 법적 지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7쪽.

(UCI: G704-001541,2009..19.006)

맹영일, 「삼의당 김씨의 한시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90쪽.

(UCI: G704-001541,2009..19.010)

박무영, 「여성적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회, 1999, 16-21쪽.

박미혜,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 양식」, 『한국여성학』 18권, 2002, 19쪽.

(UCI: G704-000349,2002,18,1,002)

朴堯順, 「三宜堂과 그의 詩 研究」, 『韓南語文學』 제11집, 韓南大學校 韓南語文學會, 1985, 20쪽.

昭惠王后 韓氏, 李民樹 譯, 『內訓』, 흥신문화사, 1992, 164쪽.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사, 2004, 89쪽.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55쪽.

안동교, 『국역 덕봉집』, 심미안, 2012, 11쪽, 13쪽.

정창권,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201쪽.

주정희, 「조선후기 시가의 하층여성 형상과 문학적 의미」,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57-59쪽.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116-122쪽.

한성금, 「미암 유희춘의 여성 인식」, 『동아인문학』 38집, 2017, 3-6쪽.

(UCI: G704-001677.2017..38.010)

_____, 「16세기 사족녀의 한시에 나타난 사유와 표현양상」,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5, 297쪽.

(UCI: G704-000390.2015..95.004)

허미자, 『한국여성문학연구』, 태학사, 1996, 137쪽.

허경진 역, 『三宜堂 金氏 詩選』, 평민사, 2008, 126쪽.

| Abstract |

Women Poets' Way to Deal With Social Demands and Orientation

— Focus on Chinese Poetry by Song Deok-Bong and Samouidang —

Han, Seong-geum

This study analysed Chinese poetry written by Song Deok-Bong(1521, in the 16th reign year of King Jungjong and the 11th reign year of King Seonjo) and Kim Samouidang (1769, the 45th reign year of King Youngjo and 23th reign year of King Sunjo) giving a focus on their life styles and literature-oriented consciousness.

Song Deok-Bong had very progressive way of thinking even though she lived in the 16th century. She obeyed to the Confucian regulations to be free in life. She used everyday life and families as poetic materials and followed the Confucian regulations in writing poetry. She expressed her feeling in simplicity and courtesy as a noble woman.

Kim Samouidang is a representative poet in the late Joseon period. she delicately expressed her feeling and longing honestly in poetry beyond the Confucian regulations required at that time. She worked as a farmer in spite of her status as a wife of high official, but she had a bright perspectiv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s her life.

As for marital relations, Song Deok Bong had an equitable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and recognized him independently. However, Samouidang recognized her husband as a relative being. Her poetry was always oriented to her husband. In particular, as she expressed affe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ctively beyond the Confucian regulations, its literary value is considered high. In accordance with whether they accepted or deviated from the Confucian regulations, they selected different materials and expressed them differently.

Key words : literature-oriented consciousness, progressive way of thinking,
Confucian regulations, positive awareness, independent acceptance,
Relative being

투고일 : 2018년 1월 15일 심사기간 : 1월 30일 - 2월 14일 게재확정일 : 2월 15일